

# 독자들 주목하는 '스님 저자' 누가 있나

不立文字 구태 벗고 활발한 저술활동... 베스트셀러도 양산

임종기

자유기고가

스님들은 경외롭고 이룰테면 신비한 너울 같은 것을 쓰고 있는 존재이다. 굳이 불교를 믿는 신자가 아니더라도 스님을 대하면 왠지 몸가짐이 쭉스럽고 그 앞에선 조심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 스님의 말씀은 구름이거나 햇볕 같은 것이었다. 보이는 듯해도 어쩔지 아득하고 고아하며, 조금 비논리적인 듯해도 그것이 오히려 큰 덕과 가르침이 속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다.

큰 가르침은 그래서 대체로 자상하지는 않다. 뭔가 알 듯 모를 듯 현실세계와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고고한 모습이어야 했다. 더구나 그것을 자신이 직접 글로 남기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대개는 그 제자 되는 스님들이 큰 스님을 회고하거나 추모하듯 '대신' 그 말씀을 굳이 적어 남긴 것들이다. 아마 스스로를 많이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움이라 여겼던 예전의 큰스님들이 요즘의 우리 서점가를 둘러보게 되면 적잖이 놀랄 것이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나를 벗겨서 보여주기'에 애를 쓴 스님들의 책이 서가 여기저기에 꽃혀 독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니 말이다.

## '승려수필' 등 대중적 인기 끌어

스님들의 책이 많이 출간된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불경을 정리한 책이나 범어집 같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서적'의 하나로 출판의 한 줄기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스님들이 쓴 책이 유행하는 것은 그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우선 두드러진 것이 내용의 변화이다. 불경이나 교리를 설하는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식의 주제를 개인사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쓴 가벼운 수필류가 대종을 이룬다. 또한 표지도 예전의 정돈되고 권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화려한 색깔, 장식, 글자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제목의 어투이다. '...경'하는 식으로 한두 단어의 명사형으로 끝내고 말던 제목이 이즈음에 와서는 화두처럼 던지는, 마치 신문담의 하나처럼 제목이 달리곤 한다. 개중엔 이른바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도 몇 있어 주목을 끈다.

그중 가장 화제거리로 떠오르는 책은 역시 석용산 스님의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라는 에세이집이다. 그것은 그 책이 제일 많이 팔렸기 때문이다. 세상을 관조하듯

평이하게 자기고백적인 이야기를 술술한 책인데, 정작 책을 쓴 석용산 스님조차도 "왜 이 책이 그렇게 잘 팔리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한다. 다만 이 책을 낸 고려원의 정성규 편집부장은 "스님이 책을 썼다는 데 대한 신비감 내지 신뢰감, 그리고 책의 제목이 톡톡이 한몫을 해낸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지금은 100만부가 훨씬 넘게 나간 것으로 알려진 이 책이 본격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작년 초파일 때 KBS방송의 한 토크쇼에 석용산 스님이 출연하면서 그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그의 책이 소개되면서였다고 덧붙인다.

인생은 무상하다. 결국은 공수래 공수거 아니겠느냐는 인생관을 대변하는 듯한 이 책의 제목을 독자들은 꽤나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 "서점에 갔다가 문득 책 제목이 나의 한 부분을 읊아내는 것 같아 열른 책을 사고 말았다"는 40대 후반의 학원강사 변형남씨는 평소 여간해서는 책을 잘 사지 않는데, 이 책을 사면 부족하다고 느꼈던 인생에 대한 자기 성찰을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저없이 책을 집어들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그 이후로 스님들의 책은 부쩍 늘어났다. 물론 그것이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의 영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중 몇 권은 그와 유사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우선 제목부터가 누구를 불러놓고 禪問을 하는 듯한 화두 같은 유형이 여럿 있다. 효림 스님의 '자네, 道가 무언지 아냐', 황혜당 스님의 '스님!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또 문학평론가 김재홍씨가 스님들의 글을 엮은 '그대, 왜 그리 허둥대는가'와 같은 제목의 책이 눈에 띄며 석용산 스님은 '여보게, 이 땅에 다시 오게나'라는, 첫번째 책의 '속편'까지 내게 된다.

## 구도의 세월과 인생역정 솔직하게 고백

스님들의 에세이집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것은 이즈음이 처음은 아니다. 1980년경 정다운 스님은 직접 출판사를 차려 '웃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에세이집을 낸 이후 '위대한 침묵' '사랑학개론' 같은 책을 잇달아 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로 인해 승적을 박탈당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스님들이 '대중적 수필집'을 쓰고 내는 것은 스님의 신분으로서 점잖지 못하고 불경

## 최근들어 스님들이 쓴 책들이

독자대중의 폭넓은 호응을 받고 있다.

## 종래의 '고전적인' 불교서적들과는

달리, 불교의 진리를 친근한 수필류의

문체 속에 담아냄으로써 일부 스님들은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유명세까지

치르고 있다.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의 석용산 스님을 비롯해

법정, 정다운, 박삼중, 법성 스님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만하다.

스러운 일이라고까지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후로도 「소설 정감록」 「인생십이진법」 같은 책을 내면서 '多作스님'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으나 도참사상이나 역술 따위에 물든, 불교도답지 못한 스님이라는 지적을 받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의 친동생 이항봉 스님(정다운 스님의 본명은 이득룡이다) 또한 그 못지 않은 다작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그 역시 불교서적 전문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거나와 「무엇이 이 외로움을 이기게 하는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람 귀하」 「겨울장마」와 같은 에세이집을 내기도 했다.

시인 황지우의 만행인 황혜당 스님의 '스님!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십니까?'라는 책은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독학한 영어로 미국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저자의 인생역정을 고백적으로 신고 있다. 법성 스님도 구도의 세월과 인생역정을 담담히 펼친 「마음 한번 돌리니 극락이 예 있구나」와 「자네도 부처님 되시게」라는 에세이집을 펴냈다. 동봉 스님의 「마음 비우고 차나 한 잔 들게나」 「부처를 버리고 부처를 찾는다」, 현각 스님의 「인생의 길이는 얼마나 되겠느냐」, 현기스님의 「어제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네」 등도 구도하는 과정에서 깨닫고 느낀 점과 아울러 인생의 지혜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책들이다. 여연 스님의 「비가 내린 뒤의 사원 숲은 참으로 맑다」는 깔끔한 수필의 맛이 우려나는 수상집이며 정목 스님의 「生은 지금 이곳에서 피어나는 꽃」은 시처럼 쓴 에세이를 모아놓은 책이다.

결레스님이라 불리는 중광 스님은 자신의 시와 그림, 수필, 기행문을 한데 모아놓은 「허튼소리」와 「나는 중이올시다」라는 책을 내어 자신의 다재다능하고 기이한 행모를 여지없이 나타내 보이기도 했다. 이번 조계종 사태 때 범종추의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효림 스님은 자신의 도반이었거나 스승이었던 스님들에 대한 수행기를 모은 「자네, 道가 뭘지 아냐」라는 책을 펴냈다. 출가 이후 禪僧으로서 참선수행에만 몰두하던 효림 스님이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이러한 스님들의 청정한 삶이 우리 불교계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또 이런 스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는 살맛 나는 곳"이라고 하면서 "소개한 스님들께는 수행생활에 오히려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좋은 이야기를 나만 알고 있어서 되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힌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효림 스님의 실천불교 운동 참여랄지 월간지에 글을 실는다는지(원래 「자네, 도가 뭘지 아냐」는 「월간대중불교」에 연재된 글이다) 하는 행적에 대해 조금은 놀라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정작 그는 수행의 방법을 坐禪에서 行禪으로 바꿨을 뿐, 예나 지금이나 다른 없는 禪客일 따름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책을 쓰는 많은 스님들도 대중적인 글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구도의 길에서 벗어났단지 하는 우려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 법정 스님 책들은 스테디셀러

'거리의 성자'라는 별명이 붙은 박삼중 스님은 교도소의 재소자를 설법으로 교화시키는 일을 하면서 겪은 일화나 재소자들의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책을 여러 권 낸 것으로 유명하다.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글을 묶은 「형장의 빛」을 비롯, 「빈 몸으로 왔다가 빈 몸으로 가는 것을」 「참새와 사형수」 「통곡하는 사람들」 등의 책을 냈는데 교도승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囚人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담아내 독자들에게 감동깊은 수기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스님들이 쓴 시집류도 여럿 눈에 띄는데 정다운 스님의 「옴 마니 반메 흠」 「숨어사는 섬」 「이 몸을 다 태워 향을 사루리」, 이항봉 스님의 「호르는 강물처럼 뜬 구름처럼」, 석용산 스님의 「나의 사랑 나의 방황 나의 종교」, 진관 스님의 「산에 와서 살 때가 더 좋다더니」,



일반대중을 상대로 불교의 진리를 쉽고 재미있는 글에 담아 전하는 '스님 저자'들이 최근 주목과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자료 월간「대중불교」제공)

지원 스님의 「결망도 내려놓고 마음도 내려놓고」, 정운 스님의 「달을 보는 섬」 등이 독자들이 비교적 자주 찾는 시집에 속한다.

또 이즈음에 와서 독자들의 관심을 얻는 책들과는 달리 큰 소문은 없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주목받는, 스테디셀러의 하나로 자리잡은 책들이 있으니 바로 법정 스님의 책들이다. 「산방한담」 「물소리 바람소리」 「서있는 사람들」 「터빈 찬만」 「영혼의 모음」 「버리고 떠나기」 「인도기행」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말과 침묵」 등의 수상집과 강론집을 냈는데 처음 책을 낸 2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복이나 유행없이 팔리고 있다. 「서있는 사람들」의 경우 약 100만 부, 그 외의 책들도 거진 10만 부씩은 나갔다는 것이 출판사측의 설명이다. 작가 정찬주씨는 “어느 정도의 문학과 사상성을 갖추고 있으며 잔잔하지만 멀리가는 향기를 내뿜는 글을 쓰는 우리시대 최고의 에세이스트”라고 법정 스님을 추켜세운다. 또 생존중인 스님으로서 드물게 「무소유」라는 수필이 대학교의 국어교과서에도 실려 그의 문학성을 증거해주기도 한다.

스님이 직접 글을 쓴 것은 아니지만 스님의 강설이나 법어를 책으로 묶어낸 것도 독자들이 많이 찾는 불교서적이다. 경봉 스님의 「야반삼경에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성철 스님의 「산은 산 물은 물」, 구산 스님의 「머물며 흘러가며」, 청담 스님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용성 스님의 법어를 동봉 스님이 정리한 「평상심을 도라 이르지 말라」, 김정휴 스님이 고승들의 법어를 모은 「달을 가리키며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와 같

은 법어집은 꾸준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책이다. 특히 얼마전 입적한 성철 스님은 불교신자 뿐 아니라 많은 일반 대중들에게도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을 받았던 까닭인지 지난해 9월 해인사 장경각에서 나온 그의 11권짜리 법어집은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고전」으로 칭해진다. 일반대중을 위한 법문과 선불교의 정통사상을 쉽게 풀이한 강설, 그리고 수행자들을 위해 펼친 법어가 총망라되어 성철 스님이 지난 30년 동안 펼쳐온 「가르침의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있어 출판되기 전부터 큰 화제를 불렀던 책들이다.

「백일법문」 「선문정로」 「본지풍광」 「한국 불교의 법맥」 등은 수행자를 위해 불교의 교리나 핵심사상을 명료하게 강설한 것이며, 「영원한 자유」는 대학생과 일반대중을 위해 펼친 설법을 모은 책으로 “영원한 행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대적이고 유한한 이 세계에서는 이를 수가 없다”고 전제하고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구경의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목표요, 모든 종교의 근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종교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정신이 번쩍들게 하는 山僧 특유의 지혜와 경고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영원한 자유」와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 두 책은 성철 스님의 법문을 모은 11권의 전집 중에서 대중과 가장 가깝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이미 15쇄 이상을 찍을 정도로 많이 찾는 책이 되었다.

불교방송에서 방송된 「고승열전」도 단행본으로 발간되어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방송대본을 쓴 윤창광씨가 직접 책으로 엮었는데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네」 「큰 생각 크게 먹고 크게 살아라」 「그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벼슬도 재물도 풀이에 이슬 일세」 등이 나왔는데 스님들의 일대기를 통해 가르침을 얻게 해준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앞으로 20권쯤 계속 더 낼 예정이라고 한다.

김성동씨가 소설 「만다라」로 큰 화제를 모은 이후 불교관계 소설은 드물었는데 승려작가 김영웅씨가 「소설 반야심경」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88년 천주교 수녀 출신의 박재희씨와 결혼해 非僧非俗 생활을 하다가 92년에 다시 입산, 현재 「해법」이란 법명의 대처승이 된 그가 쓴 이 소설은 불경 반야심경을 바탕으로, 禪, 敎, 律의 기본구조로서 반야(큰 지혜)의 깊은 경지를 탐구하는 구도소설이다.

#### 세속의 혼잡 벗어나는 청정심 제공

어쨌든 스님들의 책은 근래 들어 부쩍 늘어났고 또 그만큼 독자들의 수요를 만들고 있다. 불교관계서적을 많이 출판하고 있는 동국출판사의 사장이자 「고승열전」의 저자인 윤창광씨는 그것이 우연하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한다. “불경 자체가 해독이 난 해한 한문으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지만, 한글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그 가르침이 어렵고 까다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과, 아울러 불교에 대한 관심의 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일부에서는 스님들의 책을 비롯한 불교서적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다보니 너무 범람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활발한 출판이 이어질 것이다. 작금에 불교관계 서적이 많아진 것은 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단지 시작의 징후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道心을 그리워하는 것이 세인들이다.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을 사람들은 지니고 있다. 고전연구가 손대출씨는 “독자들에게 고답적인 학문이나 사상에 대한 욕구가, 즉 수요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불경에 대한 대리만족으로 쉽게 씌어진 스님들의 책을 찾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는 또 “그것은 우리가 몇년전 혼란과 이념의 시대를 거쳐 나오면서 개인적 명상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물질만능의 풍토와 가치관의 혼란,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 등을 수도하고 고행하는 스님들의 삶과 그 책에서나마 보상받으려는 심리도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것은 어렵게 생각해야 하고 고뇌하게 만드는 책보다는 가볍고, 편히 쉬게 하는 기능의 책을 더욱 선호하는 요즘의 독서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스님들의 출판활동이 활발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반응한다. 불교전문서점 관음손의 강관음손 사장은 “불교가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종교로 인식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불교의 참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실천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천불교의 포교 차원에서라도 스님의 책, 특히 쉽고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책의 출판이 더욱 기대된다”고 밝힌다.

얼마전의 조계종 사태로 인해 ‘불교서적의 봄’은 한풀 꺾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 이전만 해도 제법 많은 독자들이 스님들의 책을 찾았으나 조계종 사태 이후 급격히 줄어든 것은 불교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실망이 컸기 때문일 것이나, 역으로 불교와 깊은 연관이 없어도 스님들의 책은 상당한 “구매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스님들의 사상이나 정서가 출판사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는 우려도 없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함람미달의 책이 아니라면 독자들로서는 손바닥 안에서 세속의 혼잡함을 벗어난 청정심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을 얻지 않을까.